

한얼펴기 실천강령

1. '한얼펴기' 는 중국, 일본, 미국 주도의 사대, 식민, 종속 사관의 폐해를 극복하고, 반만년 전에 '홍익인간 이화세계' 의 건국이념으로 세워진 단군 고조선이 최초의 우리민족 국가라는 역사관을 널리 알리는 일을 목적으로 삼는다.
2. '한얼펴기' 는 한얼 사상에 담긴 한민족의 고유성과 창조성을 종교, 철학, 역사적으로 연구하여 인류 보편의 가치인 평화에 기여하고, 분단으로 두 세대나 단절된 한민족 통일을 실현하는 목표에 기여한다.
3. '한얼펴기' 는 재미 한인들, 특히 자라나는 이민 2세대, 3세대들에게 한민족의 후손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데 주력한다. 이주민으로서 주류사회에서의 자기실현은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자긍심을 갖는 데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4. '한얼펴기' 는 미주 각 도시마다 활동지부를 두고 전 세계 한인동포들과 연계활동을 꾀하며, 750만 해외동포들의 정체성 확립과 교류에 기여하고자 한다. 단군의 후예로서 같은 혈통과 언어의 뿌리를 가진 몽골, 만주, 남북한, 일본을 잇는 범 동이족 후손들과 연대감이 형성되기를 소망한다.

한얼의 뜻 (Meaning of Han Eol)

한얼이란 곧 우주를 뜻한다. 한얼님은 대종교에서 이르는 단군 하느님이다. 사람의 신성을 '인내천'이라고 일컫는 동학의 요체는 바로 우리 인간 개개인에 하느님의 얼, 단군의 얼이 살아있다고 보는 것이다. 서학의 대표 격인 기독교와 이슬람의 신관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그렇다고 한얼 연구소가 표방하는 한얼이 꼭 어떤 종교적 의미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우리 말 '한'은 '크다' '전체로서의 하나' '하늘'이라는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 이에 '님'을 붙여 '신'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어 왔다.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은 상제(上帝)로 일컫는 하늘님을 섬겨 왔으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하느님'이라는 말이 기독교의 신을 나타내는 고유명사로 전용되었다. 하느님이란 개념을 어떤 특정 종교에 가두어 둘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유일신이라는 뜻을 덧붙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다석 류영모 선생은 유불선기 사교회통을 평생의 화두로 삼고, 우리의 한얼 정신을 발휘하여 '없이 계신 하느님'이라는 엄청난 신관을 정립한 바 있다. 신정일은 1965년 '한얼교'와 '한얼 사상연구회'를 세웠고, 최민홍은 '한사상 연구원'을 통해 위대한 한얼 정신의 회복을 주장했다.

우랄 알타이어 계의 공통 언어인 칸(Khan)은 '크고 위대한 하나로서 만유를 포용함'으로 일즉다의 원리이다. '하나이면서 못 만물이다'라는 어찌 보면 역설적인 표현은 우리 몸의 각 세포마다 동일한 유전자가 각인되어있다는 과학적 사실로도 증명된다. 나의 한얼은 결국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조상의 뿌리인 단군의 얼로부터 이어져 온 것이 아닌가?

한얼의 일상적 의미는 곧 한국인의 고유 정신, 큰 정신, 위대한 정신, 긍정과 포용을 통해 하나로 결집되는 같은 정신(大同)을 뜻한다. 이러한 한얼 정신으로 홍익, 상생, 자존의 정신을 펼쳐나가 우리가 딛고사는 미국 땅 코리안 아메리칸의 현실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이 한얼펴기 운동이다. 그간 사용해온 '한사상 연구소'의 한이란 형용어에 얼이 빠져 있어 한얼로 개칭한 것이다.